

“농업이 2·3차 산업으로 가도록 설계해야”



▲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월 21일 농업 단체장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업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 3차 산업으로 가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오른쪽 두번째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21일 농어민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당선인은 “FTA 협정을 앞두고 농촌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 농림부의 기능을 확대해 농촌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3차 산업으로 가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식품부로 거듭나는 것은 산업융합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이라며 “식품산업을 농수산분야와 융합하는 것은 1차 생산에 머물러 있는 농수산업을 2차 가공유통업으로 육성시켜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과정을 산업화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농민과 소비자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는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는 기업이 잘되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이 농촌이 잘사는 것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민 대표들은 한·미 FTA에 따른 불안감을 나타내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쌀 목표가격 동결, 농가부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박익규 농업경영인증양회장은 “앞으로 이 당선인이 농민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민대표들은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과 관련해 “농민들의 심정을 위축시킬 수 있고, 상당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일”이라며 폐지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박익규 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윤요근 회장, 전국농민연합 정재돈 대표, 전국농민총연맹 문경식 의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 당선인측에서는 이경숙 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최경환 경제2분과위 간사, 홍문표 의원, 광승준 기획조정분과위원 등 인수위원들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등이 배석했다.